

CIS

◆ CIS 7개 저소득국, IMF·세계은행이 빈곤퇴치계획(PRSP) 추진 결정

IMF와 세계은행은 2002년 2월 21~2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키르기즈,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 7개 저소득국에 대한 빈곤 퇴치, 경제성장 및 외

채관리 능력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들 국가에 대하여 빈곤퇴치계획(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 PRSP)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확대 HIPC Initiative<sup>1)</sup> 적용을 통

<표 1>

CIS 7개국의 GDP 추이

구 분	실질 GDP 증가율			실질 GDP 지수 <sup>1)</sup>	명목 1인당 GDP <sup>2)</sup>
	1990~1995 평균	1996~2000 평균	2001 추정		
아 르 메 니 아	-11.5	5.2	7.5	51	505
아 제 르 바 이 잔	-14.9	7.1	8.5	52	652
그 루 지 야	-19.7	5.8	3.9	32	567
키 르 기 즈	-10.8	5.6	5.0	65	263
몰 도 바	-13.9	-2.5	5.0	33	360
타 지 키 스 탄	-18.9	2.9	10.0	31	158
우 즈 베키 스 탄	-2.5	3.3	3.8	101	561
7 개 국 평 균 <sup>3)</sup>	-13.2	3.9	6.2	52	438
러 시 아	-8.5	1.3	5.8	61	1,720
C I S 평 균 <sup>3)</sup>	-11.3	3.3	6.6	...	738

주: 1. 1989 = 100 기준으로 한 2000년 실질 GDP지수임

2. 2000년 기준임

3. 단순평균치임

자료: IMF and World Bank, Poverty Reduction, Growth and Debt Sustainability in Low-Income CIS Countries, Feb. 2002

1) IMF와 세계은행은 1996년 9월 빈곤국들에 대해 외채경감계획(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 HIPC Initiative)을 도입하였으며, 1999년 9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외채경감규모를 확대하고 외채경감을 빈곤퇴치와 연계토록 하여 종전 HIPC Initiative를 보다 확대(enhanced HIPC Initiative)함. 확대 HIPC는 ①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IDA)의 양허적 지원 및 IMF의 빈곤퇴치 성장금융(PRGF) 수혜 적격국가로서, ② 전통적인 외채경감조치에 의해서는 외채관리능력을 회복할 수 없고, ③ 빈곤퇴치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이행한 실적이 양호한 국가를 지원하게 됨. 한편, 상기 CIS 7개국은 모두 IDA 적격국가이며,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6개국은 PRGF 적격국가임.

한 외채 경감계획도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 IMF, E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7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국제사회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과소평가하였으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CIS 7개국의 경제상황

PRSP가 추진될 이들 7개국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실질 GDP는 물가상승, 경제부패 만연,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인해 1995년에 199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2000년 기준 1인

당 국민소득은 타지키스탄이 가장 낮은 158달러, 아제르바이잔이 가장 높은 652달러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996년부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생활수준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소득 불평등 정도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9·11 테러사건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와 인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향후 교역 및 외국인투자 전망도 어둡게 나타나고 있다.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

이번 세미나에서 해당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채권단 등은 PRSP 추진과 관련하여 각 추진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키로 한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PRSP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내용 요약

구 분	역할분담 내용
해당 7개국 정부	부패 축소, 빈곤층 부양 등 사회복지 및 안전망 확충, 신규 외채 증가 억제 등 경제개혁 계획 추진
국제·역내금융기구	해당 7개국에 대한 금융·기술지원, 정책 자문 등 지원 확대
채권단 등	보다 양호적 조건의 금융지원, EBRD의 지원 확대, 필요시 채무 경감 등 금융지원 확대, 해당국 빈곤퇴치계획 협조
역내국	무역·운송, 수자원·에너지지원 등 관련 협조 강화, 무역장벽 완화

<표 3> 지역별 고채무빈국 현황(2001년말 현재)

지 역 별	국 가 명
아프리카 (34개국 <sup>주)</sup> )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 콩고(인민),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중남미(4개국)	볼리비아, 기이아나, 온두라스, 니카라과
아시아(3개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중동(1개국)	예멘

주: 2000년 말 대비 코모로 추가

자료: IMF and World Bank, Grouping of HIPC Under the Enhanced HIPC Initiative, Jan. 2002

· 해당 7개국 정부

○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를 위해 선도적 역할 수행

- 부패퇴치와 사업환경개선
- 거시경제 안정 및 대외거래 활성화
- 공공관리 강화, 에너지부문 개혁,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개혁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사회적 투명성 및 개혁작업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국제사회의 지원 유도

· 국제금융기구

○ 금융지원 및 정책자문 등을 통한 해당국 경제성장 지원

○ 보다 양허적인 금융지원 확대

- IFC 및 MIGA 등의 신속한 금융지원
- PRGF, IDA 등 양허적 금융지원 확대

○ 기술적 지원 및 정책자문 확대

- IMF, 세계은행, ADB 등의 통화정책 및 예산운용 등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 확대

· 채권단 등

○ 파리클럽의 나폴리 조건에 따라 필요시 채무경감

· 역내국간

○ 역내무역 및 경제적 문제에 대한 협력강화를 위해 Caucasus, Central Asia 등 역내국간 partnership 구축 필요

· 역내 분쟁 축소

일부 국가들에 대하여 확대 HIPC Initiative 적용

IMF와 세계은행은 relatively heavily indebted countries로 분류된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키르기즈, 몰도바,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을 확대 HIPC Initiative 대상국가에 포함시켜 외채를 최고 2/3까지 경감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IMF 및 세계은행의 HIPC는 2001년 12월 말 현재 아프리카 34개국, 중남미 4개국, 아시아 3개국, 중동 1개국 등 총 42개국인 바, 이중 24개국이 결정시점<sup>1)</sup>에 도달(이중 4개국은 완료시점에 도달)하였으며, 14개국이 결정시점에 도달하기 위해 경제개혁과 빈곤퇴치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2001년 말 현재 HIPC에 대한 명목 외채경감액은 366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들 5개국의 외채상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정부 보증채무가 총 43억 달러에 달해 외채상환재원의 마련이 용이치 않은 실정이며, 리스케줄링(flow rescheduling)<sup>2)</sup> 등 외채상환부담 경감이나 경제개혁,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기초적인 보건·교육 등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그루지야, 키르기즈, 몰도바, 타지키스탄의 경우 재정수입 대비 현재가치 기준 외채비율이 250%를 초과하고 있으며, 키르기즈는 현재가치기준 외채규모가 수출의 150%를 상회하여 세계은행, IMF의 외채부담능력(debt sustaina-

〈표 4〉 CIS 5개국의 외채관련 주요 지표(2000년 말 현재)

구 분	단위 : %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키르기즈	몰도바	타지키스탄
수출액 대비 현재가치 기준 외채 비율	135	128	201	139	133
재정수입 대비 현재가치 기준 외채 비율	177	356	586	380	432
수출액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11	10	23	15	10
재정수입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16	36	26	42	35

자료: IMF and World Bank, Poverty Reduction, Growth and Debt Sustainability in Low-Income CIS Countries, Feb. 2002

bility)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대한 외채경감을 위해서는 제약요인도 적지 않은데, 특히 이들 5개국 외채의 14%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HIPC Initiative 참여가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서는 유인책으로서 파리클럽이 러시아에 대해 외채를 경감하고 동 금액만큼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대해 외채를 경감해주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

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PRSP 향후 일정

한편, 런던 세미나에 이어 3월에는 이들 7개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문그룹이 구성될 예정이며, 4월경 워싱턴에서 이들 7개국에 대한 PRSP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및 구체적 추진일정 등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吳銀相】